“제발 천천히… 또 다른 한나가 없기를”

횡단보도 보행 사망 故 조한나 양 사고 1주기
가족·친구·경찰 사고현장 등서 교통안전 캠페인
지난해 보행자 사고 총 769건 발생해 18명 숨져

지난해 2월 9일 오후 7시2분쯤 서귀포시 동홍동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13세의 조한나 양이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이며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사고 1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제주지역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제2의 한나 양 사고와 같은 위험성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한나 양의 사고 1주기를 맞아 9일 오전 7시30분부터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앞에서는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저속 주행 등을 촉구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한나 양의 가족과 친구들은 사고 이후 매월 9일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방학을 맞은 한나 양의 친구들이 다수 참여했으며, SNS를 통해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동참해 출근길 운전자들을 향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달라는 피켓을 들고 관심을 당부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나 양의 친구는 “한나의 사고 이후 많이 슬펐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더 많이 살피면서 건너고 있다”며 “차들이 안전 속도를 지켰으면 좋겠고 제발 천천히 운전해 달라”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보행자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9%를 차지하는 769건이 발생했으며 18명이 숨지고 776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472명이나 단속되며 2021년보다 258% 급증했다.

경찰은 9일 오후 제주 전역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을 중심으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어린이 통학버스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도초등학교 주변 단속 현장을 살펴보니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심지어 일시정지 의무 위반과 함께 제한 속도 30㎞ 이상으로 달리던 운전자도 단속됐다.

적발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몰랐다”고 변명했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이미 7개월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날 단속에서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5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3건 등 총 18건이 단속됐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운전자는 일시정지 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했다 출발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습관이다. 도로에 나서는 운전자들은 규정 속도를 지키는 것은 물론 보행자를 보호하고, 보행자 역시 안전한 보행 습관을 가져야 한다.

한나 양의 아버지는 “사고 이후 1년이 잊히지 않을 만큼 정말 힘들었지만 또 다른 한나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이 서행하고 멈춰주고 하는 모습을 조금씩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빠르게 운행하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와 보행자가 같은 입장에서 안전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운전자들이 조금 더 보행자를 보호하는 의식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9일 한나 양이 사고를 당했던 현장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교통안전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사진 왼쪽). 경찰이 이날 제주도 전역에서 실시한 보행자 안전 예방 단속. 이상국기자

장려금 지원했더니… 병 수거 ‘부쩍’

제주시 지난해 개인 수집자 2782t… 공공수거량 넘어

지난해 제주시에서 민간 수집자를 통해 수거한 재활용 유리병이 3000t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민간에 병류 수집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공공 수거 규모를 앞질렀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병류 수집 장려금은 자원 재활용에 대한 시민 참여도를 높이는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전 등록된 수집자가 지정된 재활용 업체로 병류를 반입하면 실적 확인을 통해 ㎏당 100원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다만 소주병, 맥주병 등 소매점에서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유리병은 수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 첫해인 2021년에는 민간 수집자 수거량이 1389t이었고 지난해엔 2782t으로 그 양이 크게 늘었다. 작년에는 공공 수거량(1269t)에 비해 민간 수집자 수거량이 더 많았는데 여기에 지원된 수집 장려금은 총 2억6000만원에 이른다.

올해는 개인 수집자들이 병류 3000t을 수거할 것으로 예상해 3억원으로 지원금을 늘렸다. 진선희기자

양돈장 화재, 났다 하면 ‘대형 피해’

최근 5년 도내서 27건 발생
22건 서부권 발생 31억 피해
소방-한돈협회-시 대책 논의

양돈장 화재 다발 지역인 제주 서부지역에서 화재 예방과 대응력 강화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서부소방서는 지난 8일 대한한돈협회 제주지부 회원 및 행정시 관계자들과 양돈장 화재 예방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부소방서 관내인 제주 서부 지역은 제주도 전체 양돈장의 83%가 집중돼 있으며 총 19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양돈장은 대부분 읍·면 지역에 산재돼 있고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처에 어려움이 있고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대형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27건의 양돈장 화재 중 22건이 서부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만 31억여원에 달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화재 사례를 알리고 비슷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으며 양돈농가와 소방서 간 상호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양돈장 관계인의 예방적 안전관리 환경 조성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서부소방서는 유관기관과 합동 안전검검을 강화하고 안전정보 문자 알림 시스템 구축, 가상 화재 출동 훈련 등을 통해 양돈장 화재 예방과 대응 역량을 높여갈 계획이다. 김도영기자

“상사에게 성폭행 당해”

공공기관 여직원 고소장 제출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쯤 제주도 산하 모 공공기관 소속 여직원 A씨가 상사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말쯤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직 피고소인 조사 전으로 고소장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새연교 인근서 실종 40대
수색 3일째 행방 못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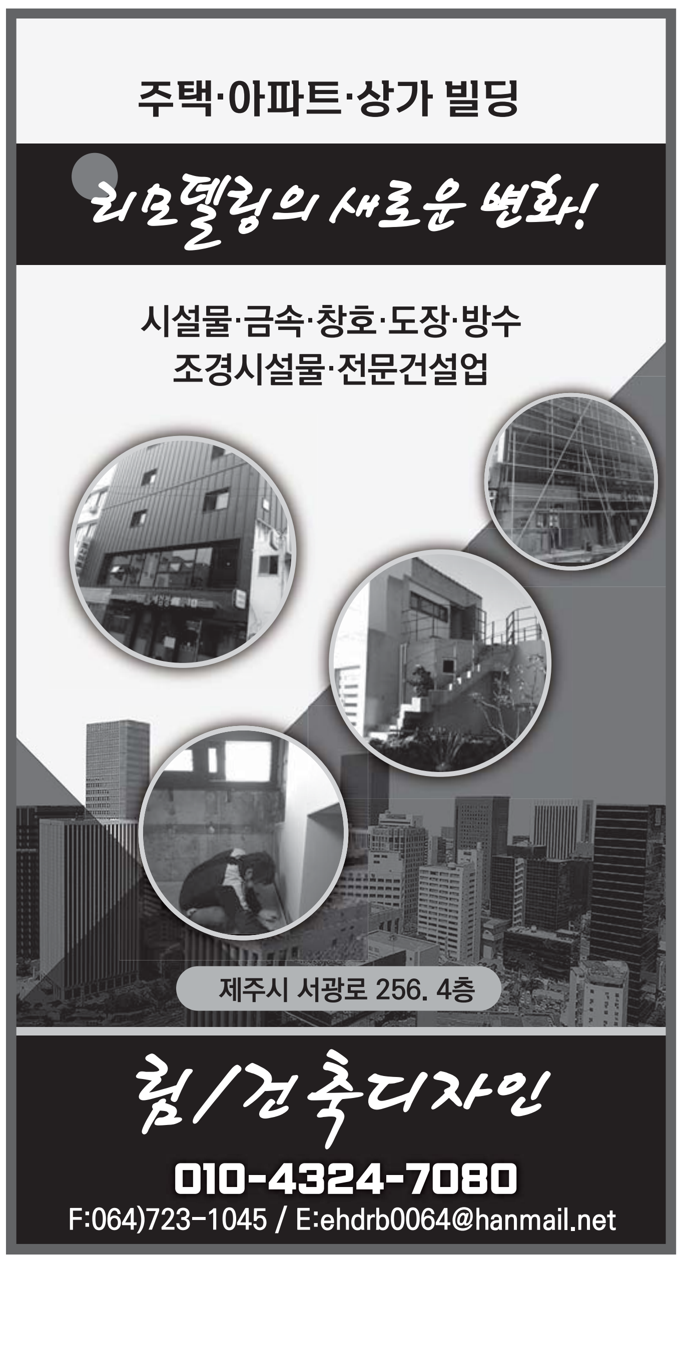
서귀포항 인근 새연교에서 40대 남성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3일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9일 제주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46분쯤 A(49)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이 위치 추적한 결과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신고 접수 당일 오전 7시쯤 새연교 일대에서 꺼졌고, 새연교를 통해 새섬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CCTV에서 확인됐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명구조견과 헬기, 드론 등 사건 현장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백금탁기자

후보 비방 20대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 지난해 4월 24일부터 이틀간 특정 정당의 경선 후보자로 나선 예비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해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를 편집한 이미지 형태의 게시물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